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형 AI-그린뉴딜 본격 추진

다음달 초 추진위원회 출범

62개 사업 시비 3477억·민자 투입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AI-그린뉴딜 사업에는 녹색 전환·기후 안심·녹색산업 도시를 조성하는 3대 전략, 62개 세부 사업에 시비 3477억원과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을 마련해 단계·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만든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에 8억원(민자 4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11월 그린 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첨단 산단에는 올해부터 195억원을 투입해 민간 중심의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47곳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3500세대에는 16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교통·수송 분야에서는 44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수소 시내버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 차 7300여대 조기 폐차, 전기차 1200여대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

영산강 대상공원 등 14곳에는 시비 350억원 등을 투입하고 민간공원 9곳에는 민자 1조807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토지 매수에 들어간다. 국내 첫 도심 속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는 환경단체, 주민들과 소통으로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2021년은 광주가 고탄소 에너지 의존도시에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린뉴딜의 원년”이라며 “변화에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광주를 탄소중립의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농업인 사업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보성군 조성면 청년여성농업인 사업현장인 싱싱농원을 방문, 김소영 대표로부터 딸기 재배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 대표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한 딸기, 토마토를 가공해 판매하고 체험 등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전남도, 도로정비사업 1658억 투입

70개 지구 220km...상반기 80% 집행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내 총 70개 지구 220km에 모두 16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올 상반기 내 80%를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지난해 착공된 해남 북평-북일 등 6개 지구 42km를 대상으로 792억원이

투입되며, 계획 기간 내 도로를 개통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지역 중장기 발전을 위해 나주 금천~화순 춘양 등 3개 지구(32km, 6123억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5차 5개년 건설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광주·전남의 상생 및 지역성장 발전 실현을 위한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15.4km, 1162억원) 설계도 착수한다.

지방도 사업은 62개 지구 209km에 806억원이 투입돼 이중 30개 지구 112km는 지난해 이어 계속사

업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 등 6개 지구가 올해 준공되면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광-영산 등 12개 지구는 신규 착공을 위해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수 금오도 연결을 위한 기본 조사와 전남도 도로관리 계획 용역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또 신안의 천사대교,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하의도 평화의 섬 연결을 위해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도 본격 추진한다. 해상교량 1.63km와 접속도로 1.24km를 포함한 2.87km가 2차로로 설치되며 총 사업비 15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자 노트

광주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민중·인권의 도시 광주시 청사 1층에 광주의 ‘영웅’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 지난 14일 들어섰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공동체에 헌신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개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로나19 최전선 방역현장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 민중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리라 생각했다.

명단을 받아보니, 예상을 깨고 건설업자와 사업가 등이 수두룩했다. 광주시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고 밝힌 ‘영웅’은 1987년부터 시작된 시민 대상 수상자 153명과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터’ 회원 114명 등 267명이었다.

이 중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자, 투자 등을 명목으로 지역내에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자 등의 이름도 눈에 들어왔다. 반면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광주 영웅이 누구냐’고 물으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영웅(英雄)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비범한 인물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웅은 충무공 이순신 등이 있다. 서양에선 영웅을 ‘히어로’라고 부르는데, 신격화하는 성향이 강해 ‘슈퍼맨’이나 ‘배트맨’ 등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히어로로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영웅 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1억원 이상 고액기부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뜻을 기리는 데 이견을 제기할 이는 없다. 다만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이 수시로 오가는 광주시청사 1층에 단지 1억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까지 헌액하는 게 옳은

지는 따져볼 문제다.

광주시는 ‘영웅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자 포함 논란<광주일보 2021년 1월 15일자 2면>이란 기사가 나간 직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내는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문제가 제기된 일부 헌액자는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정치부 기자

앞으로도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터 회원의 경우 법적처벌만 받지 않는다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영웅 대우를 유지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해명인 셈이다. 별다른 고민 없이 ‘영웅’을 특정그룹으로 일괄 지정했던, 행정 편의주의식 ‘탁상행정’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시민여론과 동떨어진 행정행위를 지켜보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광주에선 돈만 기부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냐는 반응부터 광주에는 고액기부자와 시민대상 수상자 외엔 영웅이 없느냐는 등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광주시의 행정력으로 영웅을 찾기 힘들다면 지난해 12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간한 웹툰 책자라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웹툰 ‘광주역사문화자원 인물편’에는 전통시대와 근현대시대 인물 51명이 소개돼 있다.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광주 인권 변호사 ‘홍남순’, 광주를 지키고자 했던 5월 사제 ‘조비오’, 애뜻한 운동화의 주인공이자 광주의 아들 ‘이한열’, 우리 시대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 참스승 ‘윤영규’, 어두운 시대 불빛이었던 ‘윤상원’, 망월동에 묻힌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민주화 길목에서 만난 ‘영웅’부터, 광주 여성운동의 선구자 ‘조아라’, 무등산의 성자 ‘최홍중’, 광주학생운동의 아버지 ‘송홍’ 등 광주대표 영웅의 이야기를 한정된 신문 지면으로 모두 소개하기 힘든 점이 죄송할 뿐이다.

/lucky@kwangju.co.kr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 변경 공개토론회 나선다

토론 방식·일정 시민단체와 협의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 공개 토론회를 통해 투명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론 방식과 시기는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측에도 공개 토론회 개최 결정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전국 평균(19.2%)에 못 미치는, 가장 낮은 비공원 시설 면적 비율(9.6%)을 적용하는 등 모범적

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토론회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검증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며, 세대수 증가, 용적률 등이 일부 상황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측은 “지역사회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을 검증하는 토론회인 만큼 토론회 패널은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과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3학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신 학 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 형 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 형 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